

# 평창동계올림픽,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2017년 5월 26일(금) 오후3시
-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바실리오홀

## [1부] 가리왕산 논쟁 ; 주민들의 시각에서

- 사회 :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
- 발표 : 윤지혜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
- 토론 :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 정용철 (서강대 교수)

## [2부] 종합토론

- 사회 :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
- 평창동계올림픽,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도쿄올림픽 시민모임과의 국제연대 방안

# “가리왕산 논쟁: 주민들의 시각에서”

; 윤지혜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

##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경기장 건설로 제기된 가리왕산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특정한 환경문제가 상이한 유형의 의사소통으로 다양하게 특징짓는 방식을 이해하고, 나아가 의사소통 해석에 따라 환경문제의 가능한 해결책이 제한되거나 반대로 권장되는 방식에 이해를 돕는데 있습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본 연구는, 권력과 집단적 책임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적 관점으로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환경적인 미래구상을 위한 의사소통 역할을 탐구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리왕산에 대한 기사를 쓴 메이저와 지역언론 기자들 (5명), 환경 및 시민운동가들 (14명), 그리고 지역주민들 (11명)을 2017년 3월 ~ 5월 사이에 만나 면담을 했습니다. 그 중 이 자리에서 요약할 내용은 주민들과의 면담내용입니다.

지역주민 면담자들 11명에 관하여,

- 정선읍번영회 관계자 3명 (남, 50-60대. 평생 북평리와 정선읍에 거주)
- 정선 관광안내소 직원 1명 (여, 40대. 평생 북평리에 거주)
- 민동산 지역 부부 2명 (20대후반, 30대초반. 여자는 경기도가 고향. 남자는 정선이 고향. 경기도에서 만나 결혼 후 강원도로 이사)
- 속암리 이주민들 5명 (60-70대 여성 4명 + 60대 남성 1명. 평생 속암리에 거주)



## 1. '94% 찬성'의 뒷면: 주민들의 시각에서

### a) 정선읍

- 정선군에서 경기장과 다소 떨어진 정선읍 주민들은 가리왕산 개발에 더 옹호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찬성했음. 하지만 모두들 막연한 기대를 가진 건 아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올림픽 전까지 바짝 더 벌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림.
- 중립적: 도로사정이 좋아진다는 긍정적인 부분은 기대가 되지만 정선이 자연경관, 청정지역 이미지로 유명한 곳인데 그 중에서도 큰 산인 가리왕산이 훼손된다는 점이 안타까움. 관건은 끝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것 같다고 함 (사후복원보다 유지의견이 훨씬 더 강함).

### b) 북평면 북평리

- 정선읍 분들과 비슷하게 경제활성화의 이유로 가리왕산 개발 찬성의견, 그리고 경기장 사후유지 의견이 강했음.
- 가리왕산에 부여하는 의미가 언론에서 다뤄진 '신성한 산' 담론과는 다른 게 인상적. 상대적으로 자연이 풍요로우서 "가리왕산 하나에, 그것도 산 일부지역이" 훼손되는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것 같음.

### c) 북평면 속암리

- 알파인경기장 바로 밑에 살던 보상금을 받고 이주를 해야 했던 주민들은 정선읍과 북평리 주민들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의견을 내놓았음. 많이 반복하셨던 말: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 저항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 이주하는 과정도 평탄하지 않았고 빨리 나가야 하는데 이주할 집이 준비되어있지 않아 폐교에서 추운 겨울을 힘들게 보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론주목이 없었음.
- 이주 후에도 계속 되는 피해: 발파로 인해 새 집에 금이 가는 것; 공사소음; 흙물; 보상금으로 인해 주민사회가 찢겨짐.
- 가리왕산에 부여하는 의미: “그냥 산” - 하지만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터전

## 2. 의사소통의 방해요소

- 정선읍, 북평리, 속암리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걸로 보임
- 이주민들에게 이런 하소연을 할 곳이나 기회가 있는지 물어보니 당연히 없다고 답함 - 더 안타까웠던 점은 언론에서 관심이 없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는 점. 정선읍 번영회 사람들도 같은 의견이었음. 지역이 작고 “돈이 안 되는 뉴스이다 보니” 언론이 당연히 다루지 않을 거라는 점을 너무도 당연히 여겼음.
- 의사소통에 끼치는 한국의 문화적인 요소: 마을 ‘원님’의 영향; 주민대표의 힘, 강원도의 보수적, 고령화 사회

## 3. 주민들이 원했던 ‘환경올림픽’

- 가리왕산 개발, 그리고 올림픽에 찬성하시는 이들은 자연훼손에 신경을 안 쓰고 단순히 경제적 이득과 개발만 추구한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더 복잡한 현실
- 지역주민들 (번영회관계자들분)이 ‘환경올림픽’이라는 말에 바랬던 점: 평창 대관령면 횡계리 도암댐의 수질개선. 하지만 아무리 요구를 해도 정부 쪽에서는 못한다고 함. 이에 따르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있음.

## 4. 문제의 뿌리? 부족한 민주주의, 개발주의, 시민의식, 문화적 가치관

- 지역주민들 (특히 이주민들) 의식에 너무 강하게 자리잡은 ‘저항을 해봤자 소용없다’ 라는 생각
- 올림픽이 던진 경제개발과 자연보존이라는 양극화된 선택
- ‘나라행사’라는 개념 - 나라에서 하는 일은 감히 사람들이 막아내지 못한다, 아니 막으면 안 된다 라는 정서
- ‘서울공화국’ - 개발에서 오랫동안 소외된 지역으로서 오래된 지역불균형이 미친 영향

# 평창동계올림픽 대응방안(초안)

- 2017년 5월 12일(금) 진행되었던 모임결과 반영

## 1. 활동방향

- 평창동계올림픽 및 메가스�포츠이벤트의 문제점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
- ‘경제, 환경, 문화, 평화’ 올림픽 가능성에 대한 탐색, 비판 및 대안 제시
- 국내 스포츠 환경 문화단체와의 연계 강화 및 국제연대 확대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국회 연계

## 2. 운영계획

- 월 1~2회 정기모임 개최, 평창올림픽 관련 국내외 연대활동 기획
-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워크숍), 월간 브리핑, 캠페인, 국회토론회 등
- 백서 등 기록 작업

## 3. 주요활동계획

### (1)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 등 메가스�포츠이벤트 관련 법제도 개선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 : 유치과정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강화, 유치과정에서 지역주민 의사확인과정 추가, 사전타당성 분석에 대한 기준 마련 등
-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후 평가 법적 제도 마련
- 국회토론회 개최

---

### (1) 올림픽 관련 악법 개정 감시

지난 2014년 3월 염동렬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아직도 계류 중인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의 관리 주체를 국민 체육진흥공단으로 하는 체육진흥법개정안 감시

올림픽 사후 관리 운영비 조달을 위해 구상 중인 경비사업 개시와 동계스포츠 스포츠포토 신규 종목 포함 작업 지속적 감시.

(2)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7조 개정작업

현행 “조직위원회는 대회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에서 기간을 ‘6개월에서 최소 24개월’으로, 평가주체를 조직위만 아닌 ‘전문가, 학계, 해당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의 단체’를 포함한 내용으로 하는 법안개정 활동

(2) 평창동계올림픽 과정 및 사후 모니터링

- 평창동계올림픽 진행과정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 월 1회 감시 뉴스 브리핑 발행. 6월부터 진행시 18년 2월까지 9~10호 발간 가능

ex. 6월 ; 새정부 평창동계올림픽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가리왕산 주민인터뷰 내용

7월 ; 평창 - 환경올림픽 가능성은? + 도쿄올림픽과 인권문제

8월 ; 평창 - 평화올림픽 가능성은? + ‘스포츠와 평화’ 관련 사례

9월 ; 평창 - 경제올림픽 가능성은? + 해외사례(리우 등), 평창올림픽 예산분석

10월 ; 평창 - 문화올림픽 가능성은? + 시설 사후활용방안 점검

11월 ; 평창 - 노동과 인권(주민인권침해 사례 및 임금체불, 노동인권 관련 내용)

12월, 1월, 2월, 3월...

- 환경파괴, 예산 감시, 인권문제 등

- 평창올림픽 시민모임 백서 발간

(3) 캠페인 진행

- 환경파괴, 예산, 인권 문제 등의 내용을 담은 한/영 지도,브로셔,가이드북 등 제작 및 배포(리우올림픽 참고)

(4) 평창동계올림픽 예결산 분석

- 나라살림연구소 연계

(5) 국제연대(2020도쿄올림픽재해를 거부하는 모임, 브라질 Rio 2016 – Os Jogos da Exclusão)

- 이경렬은 지난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일본 <2020도쿄올림픽재해를 거부하는 모임>의 초청으로 일본 내에 올림픽 반대운동 국제 연대활동을 했었음. 도쿄올림픽 반대운동에서 쟁점은 도심 재개발과 강제퇴거임. 시부야구 미야시타 공원 폐쇄 및 강제퇴거, 신주쿠구 메이지 공원 강제추방, 신주쿠구 도영 가스미오가 아파트 철거가 대표적임. 특히 미야시타 공원문제는 지난 3월 말에 발생되었음. 일본 올림픽 반대 시민단체에서는 이경렬에게 미야시타 공원 문제에 항의하는 국제 연대를 요청했음. 한국에서는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 2020도쿄올림픽재해를 거부모임, 브라질 Rio 2016 - Os Jogos da Exclusão을 필두로 각국의 올림픽반대 시민단체를 교섭하여 IOC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하자는 의견도 있음

# 도쿄올림픽 반대운동 연대제안 준비

- 일본 내 도쿄올림픽에 반대하는 시민모임 현황과 올림픽으로 인한 강제퇴거 사례
- 이경렬 / 체육시민연대 대외협력국 간사

작성자 이경렬은 지난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일본 <2020도쿄올림픽재해를 거부하는 모임>의 초청으로 일본 내에 올림픽 반대운동 국제 연대활동을 했었음. 도쿄올림픽 반대운동에서 쟁점은 도심 재개발과 강제퇴거임. 시부 야구 미야시타 공원 폐쇄 및 강제퇴거, 신주쿠쿠 메이지 공원 강제추방, 신주쿠구 도영 가스미오가 아파트 철거가 대표적임. 특히 미야시타 공원문제는 지난 3월 말에 발생되었음. 일본 올림픽 반대 시민단체에서는 이경렬에게 미야시타 공원 문제에 항의하는 국제 연대를 요청했음. 이에 이경렬은 국내 체육분야 시민단체와 문화분야 시민단체, 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 등등 여러 단체에 도쿄올림픽의 반대하는 국제연대활동을 제안하고자 함. 본격적인 국제연대 활동 계획은 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 후속 활동 회의 이후 작성할 예정. 본고에서는 일본 내 도쿄올림픽 반대하는 시민모임 소개와 도쿄올림픽으로 인한 강제퇴거 사례를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둠.

## ○ 일본 내 도쿄올림픽 반대하는 시민모임 현황

- 현재 일본에는 2020도쿄올림픽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이 아래와 같이 다수 존재.

안티올림픽 <https://hangorin.tumblr.com>

가스미가오카아파트를 생각하는모임 <http://kasumigaoka2020.blogspot.kr>

츠키지 수산시장철거를 반대하는 노동조합

미야시타 공원 Nike Park 건설 반대 연합회

나가노 동계올림픽은 필요없다 네트워크

자하하디드 국립경기장 설계를 반대하는 모임

- 올해 2017년 1월 22일, 위와 같은 모임과 <전쟁에 반대하는 행동>, <기미가요 반대운동> <자위대 감시텐트>, <후쿠시마 피폭노동자를 위한 네트워크>등 여러 분야 단체의 연대체인 <2020올림픽 재해 거부2020オリンピック災害 http://www.2020okotowa.link>가 출범.

○ 올림픽으로 인한 강제퇴거 사례

미야시타 공원 폐쇄

2017년 3월 27일 도쿄도 시부야에 위치한 미야시타 공원 폐쇄 및 강제 퇴거임. 올림픽에 필요한 시설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공사 착수를 강행한 것임. 시설은 17층 규모의 호텔과 쇼핑몰임. 3월 27일, 일본 정부는 예고 없이 구청 요원, 경찰, 경비원을 동원하여 미야시타 공원을 봉쇄했음. 20여 명의 노숙인은 강제 추방당함. 이를 항의한 시민단체 한 명이 체포되어 한 달 가까이 구금되었다가 4월 26일 석방됐음. “안티올림픽모임”를 필두로 여러 시민단체는 미야시타 공원 강제퇴거 항의 운동을 하고 있음. 국제적으로도 일본 정부를 비롯 도쿄도지사, 시부야구청장, 시부야구 공원 담당부서에 항의 전화 및 민원, 성명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 중임.

- 해당 사이트 ; <http://minnanokouenn.blogspot.kr/>

- 관련기사

OBS뉴스(2017.3.29) [왓유원트] 올림픽 앞두고 '내몰리는 노숙자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925>

홈리스뉴스(2015.5.7) [30호-요세바통신-공원은 누구의 것인가?

[http://homelessaction.or.kr/xe/index.php?document\\_srl=727401&mid=hlnews](http://homelessaction.or.kr/xe/index.php?document_srl=727401&mid=hlnews)

메이지 공원 강제추방

2016년 4월 16일 인근 메이지 공원에 살고 있는 홈리스 3명의 텐트가 신경기장 건설을 맡고 있는 ‘일본 스포츠 진흥 센터’(JSC) 신축공사로 강제 철거와 퇴거를 당함. 4월 16일 오전 7시경에 도쿄 지법의 집행관과 경비원이 홈리스의 텐트를 철거하고 짐을 트럭에 실어 날랐음.

- 관련기사

홈리스뉴스(2016.5.24) [40호-요세바 통신] 의례행사? 올림픽과 노숙인 퇴거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jinbo\\_media\\_31&nid=100985](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jinbo_media_31&nid=100985)

아시아경제(2016.10.03) [엄기자의 일본 속으로] 내몰리는 도쿄 노숙자들...올림픽이 뭐길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1002010000203>

가스미가오카 도영주택 철거

신주쿠구에 위치한 도영주택 가스미가오카 아파트는 1964년 도쿄올림픽 경관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건물임. 1964년 도쿄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인 일본 국립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이곳은 3~5층 건물의 10동으로 300세대 규모. 2011년 일본 당국은 2020도쿄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을 기존 일본 국립경기장 부지에 새로 짓기로 결정. 신축공사를 계획에는 경기장 주변 4만㎡ 부지 공사가 추가되었는데 그 중 가스미가오카 아파트가 포함된 것. 가스미



가오카 아파트 거주자는 착공될 때부터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고령층이 많아 이주를 거부하는 사람이 대다수였는데 당국은 이들에게 퇴거 통지를 내렸음. 이와 같은 무리한 행정 집행은 여러 사회적 비난을 가져왔고, 일본주택회의, '국민의 주거를 지키는 전국연결회', '주거 빈곤에 대처하는 네트워크'는 2016년 10월 개최된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3차 UN 컨퍼런스'해비타트3(HABITATIII)'에서 일본의 주거 불안정의 사례로서 다뤄지기도 했음. 현재 가시미가오카 아파트 부지에 일본체육협회와 일본올림픽위원회(Japanese Olympic Committee, JOC) 건물, 지하 1층에 지상 14층(60m) 규모의 빌딩이 지어지고 있음.

- 해당 사이트 ; 가스미가오카 아파트를 생각하는 모임 <http://kasumigaoka2020.blogspot.kr>

- 관련 기사

OBS(2013.09.19) "올림픽이 싫어요"...日 도쿄 男 사연은?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9554>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참고자료 ; 언론기사

## 1. 새정부 평창동계올림픽 움직임

1) 새정부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방안 언급'

- 강원일보 / 문 대통령 '제1국정과제' 약속 이행 / 2017-5-26 (금) 2면

-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705250010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직접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평창올림픽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제1의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던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그만큼 평창올림픽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을 만나 조직위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과제 등에 대한 입장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전 국민적 차원의 붐업의 시급성과 운영예산 부족분 4,000억원 해결, 공공기관의 올림픽 후원 참여 방안 등에 대해 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장기간 공석으로 인한 정부와의 네트워크 문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올림픽 관련 예산 처리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낮고 (많은 국민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차질 없는 대회 개최를 위해 추진공정, 예산 확보, 사후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 남북교류

- JTBC / 2017.5.22 / “북한 태권도, 10년 만에 방한...새 정부 첫 남북 체육 교류”

- <http://news.jtbc.joins.com/html/064/NB11472064.html>

다음달 북한의 태권도 선수들이 10년 만에 우리나라에 와서 시범 공연을 할 예정인데요. 내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지 주목됩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북한의 태권도는 조금 다릅니다.

특공 무술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발차기가 나오고, 차력 시범 같은 장면도 이어집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 ITF 시범단은 다음달 24일부터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개막식에서 시범 공연을 해달라는 우리 측 초청을 받아들인 건데, 새 정부 들어 남북 스포츠 교류의 첫 사례입니다.

태권도 시범단은 북한에서 장관급인 상업상을 지낸 리용선 ITF 총재를 포함해 30여 명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북한 태권도 선수들의 방문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과 북한의 장웅 IOC 위원 등도 참석합니다.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리는 태권도 대회에 우리 선수들이 참가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동안 스포츠 분야는 남북 관계가 막혀 있을 때 특별한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내년 2월 북한 선수단에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육로를 개방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의 참가 여부도 주목됩니다.

## 2. 사후활용 문제

- YTN / 2017.5.14 / “올림픽 치르기도 전에...‘알펜시아’ 어쩌나”

- [http://www.ytn.co.kr/\\_ln/0115\\_201705140338039102](http://www.ytn.co.kr/_ln/0115_201705140338039102)

내년 2월 예정된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2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림픽 주 무대로 사용될 종합리조트, 알펜시아 처리를 놓고 고민이 깊습니다.

외국 자본에 매각하거나 정부 인수만을 바라는 처지입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는 동계올림픽 유치의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국내에 동계 체육 시설이 없다는 점이 2번의 올림픽 유치 실패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였고, 스키점프 등 주요 경기를 치를 알펜시아 건설과 함께 올림픽 유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조 6천억 원을 들여 만든 알펜시아는 막대한 부채 덩어리이자 강원도 재정의 블랙홀이었습니다. 우량 지방 공기업이었던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조성 후 부채비율이 스무 배 가까이 크게 늘었고, 원금 일부를 갚았지만 지금도 연간 이자 비용이 250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 올림픽을 치르기도 전이지만, 어떻게든 시설물을 처분해 은행 빚을 줄이자는 겁니다.

처리 대상인 알펜시아 시설은 크게 3개 지구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한 채에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급 빌라입니다.

현재 60% 정도 팔렸는데 나머지도 분양을 서둘러 빚을 갚겠다는 겁니다. 호텔이나 콘도, 물놀이장 등도 중국이나 싱가포르 기업과 매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올림픽 스포츠시설, 즉 스키점프나 바이애슬론 같은 주요 경기 시설입니다. 사겠다는 곳이 없고, 올림픽 이후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정부가 인수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노재수 /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 3개 종목의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전문 체육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없습니다.]

올림픽 유치와 성공 개최를 위해 조성한 평창 알펜시아, 과잉 투자 비판과 함께 올림픽 개최 전 해외 매각과 정부 인수를 바라봐야 하는 상처받은 영광으로 전락했습니다.

### 3. 국제 올림픽 문제

#### 1) 2016리우

- JTBC / 2017.5.19 / "올림픽 빛과 폐허만 남은 리우...남 일 같지 않은 평창"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70557](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70557)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난해 여름에 올림픽이 열렸던 브라질 리우의 지금 모습,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고, 올림픽 시설 곳곳이 폐허가 됐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브라질 리우는 17일간 화려한 스포츠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빛과 폐허만 남은 초라한 도시가 됐습니다.

올림픽 경기장들은 대부분 방치돼 내부에는 녹물이 고여 있고, 외부엔 노숙자가 모여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경기장의 의자와 배선 등은 도둑들의 표적이 됐고, 올림픽 선수촌 분양률은 10% 미만에 그치면서 수익은커녕 추가 비용만 늘고 있습니다.

결국 리우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아직도 423억 원의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지만, 리우 주 정부와 시 정부 역시 심각한 재정난으로 쉽게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평창도 대회 이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올림픽 개막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과 정선 알파인 센터는 아직 사후 활용계획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경기장도 대부분 자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서,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상당한 적자를 피할 수 없을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2) 2022카타르월드컵

- 오마이뉴스 / 17.2.26 /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사망한 노동자 '1200명'”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106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1061)

수백 개의 카메라가 한 사람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고개를 든 그는 크게 도시 이름을 외친다. 적막했던 장내는 순식간에 환호로 가득찬다. 화면은 곧 발표 상황을 중계를 통해 지켜보던 시민들의 모습으로 넘어간다. 수백 명이 자신의 일처럼 박수를 치며 기뻐한다. 누구의 아버지는 그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아버지가 물을 팔수도 있는 일이고, 누구의 누이는 경기 진행요원으로 일할 수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몇 명이 일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는 수만 명이라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은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 한다. 우리 모두의 경사에 흥분이 넘쳐난다. 하지만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가정이 몇이나 될지, 숨 막히는 노동착취에 시달리게 될 이가 몇명에 이를지, 과도한 언론통제와 치안유지정책으로 몇명이나 감옥에 갇히게 될지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다.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라고 불리는 월드컵, 올림픽 등이 열리는 2년마다 경기장 스펙에서부터 출전 선수와 경기 결과, 각국의 응원열기, 국가 순위에 이르기까지 각종 뉴스가 언론을 통해 쏟아진다. 아시안게임, 동계올림픽, 유니버시아드까지 더하면 그 주기는 더욱 짧아진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강제퇴거-노동착취-공권력 남용-표현의 자유 탄압으로 이어지는 인권침해가 필연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주목받지 못한다. 대형 스포츠 행사는 인권 취약계층에 재앙으로 다가온다.

스위스의 주거권과 퇴거 센터가 발표한 '주거권을 위한 공정한 시합(Fair play for housing rights)' 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 서울부터 2008년 베이징까지 6번의 하계 올림픽으로 인해 살던 곳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난 사람이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 월드컵 등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도시 재개발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당국은 스포츠 행사와 연관된 주택 개발과 경기장 건설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지만, 이에 따르는 수익을 취하는 사람은 기득권에 한정된다. 경기장 건설을 위해 철거가 이뤄지는 곳은 저소득층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며, 철거는 경기 개최 일이라는 '데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토론과 주민투표 등의 민주적 절차는 생략된 채 무리하게 강제로 집행되곤 한다.

당국에서는 낡고 오래된 지역 주택을 재개발한다는 장점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해당 지역에 새로 지어진 주택은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으로 상승해 입주를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2012년 런던의 사례에서 보듯이 당국이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겠다고던 공공주택의 물량은 약속했던 절반 수준에서 최대 31%로 기존 계획에 못 미치고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200 (2010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사망자 추정치)

2014 소치 동계올림픽 60

2014 브라질 월드컵 10

2012 런던 올림픽 1

2010 남아공 월드컵 2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1

2008 베이징 올림픽 6

짧은 시간 안에 경기장을 세우는 고된 일은 이주노동자의 몫이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아름다운 경기의 추한 단면(The ugly side of the beautiful game)'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투입된 노동자의 90%는 인도, 파키스탄, 네팔 등지에서 온 이주노동자이며 이들은 참혹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섭씨 50도에 이르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작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며, 더럽고 좁은 숙소에서 여러 명이 생활해 전염병이 유행하기도 한다.

카타르 정부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카팔라(Kafala)'는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직장을 옮기거나 출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노동 착취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본국 귀환을 막기 위해 일부러 임금을 체불하거나 여권을 빼앗고 근무조건에 항의하는 이들에게 출국을 막겠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이 국제사회에 대대적으로 공개되었음에도 카타르 정부와 국제축구연맹(FIFA)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디다스, 코카콜라 등의 글로벌기업은 어마어마한 마케팅 기회가 될 '스포츠 축제'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후원을 계획 중이지만 건설 노동자들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당국의 용인 아래 기업이 개발과 홍보에 열을 올리는 사이 공권력은 시민을 향해 칼을 겨눈다.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을 개최한 브라질의 경우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치안 정책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이 과정에서 공 권력에 의한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타인에 의해 목숨을 잃은 5명 중 1명은 경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생자 대다 수가 빈민가나 소외지역에 사는 젊은 흑인 남성으로 알려졌다. 월드컵이 개최된 2014년에 경찰에 의한 사망률이 전년도보다 39.4% 증가했으며, 올림픽을 앞둔 2015년에는 2014년보다 11% 더 증가했다. 스포츠 행사를 빌미 로 강화한 치안 정책은 무분별한 공권력 사용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고, 국가 폭력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러한 문제가 깊고 터지는 사이 모두가 침묵했던 것은 아니다. 현상을 목격한 시민과 언론은 당국에 항의하고, 기 사를 보도하고,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무작위로 구금되었고 몇몇은 범죄활동과 관 련됐다는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법적 제재를 받았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데 스포츠를 악용했다는 평가를 받은 때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었다. 중국 정부는 사회질서 문란행위 단속을 명목으로 시민운동가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교화를 위한 노동 '에 동원했으며, 사회운동 단체들이 올림픽 종료 때까지 허가 없이 베이징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 기간 동안 영장 없는 임의구속 건수가 크게 늘었고 구치소 내 폭행 사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티베트, 파룬궁 등과 관련된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 받는 중에도 조명은 여전히 화려한 경기장을 비추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분투했다.

삶의 터전이 짓밟히고 밀렸다. 버티던 이들은 끌려나간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거대한 아레나가 들어선다. 땅을 다 지고 골조를 세우는 사이 저평가된 노동력 수천은 고혈을 쥐어짠다. 이제 곧 막이 오를 경기장을 중심으로 주변마 을에 대한 심상치 않은 공권력이 사용된다. 주변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목소리를 가진 여럿은 카메라 렌즈 밖으로 사라진다. 사라진 그들은 감히고 매질을 당하고 총을 맞았다. 아레나에는 함성이 터지고 욕망이 분출된다.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에는 억압의 굴레가 숨통을 조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의 법칙이다. 15